

가람 속 살아 숨 쉬는 역사



신대현의 '우리 절을 찾아서'

한국문화에서 사찰은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찰은 종교 건축물이나 불교의식, 수행 등이 이뤄지는 종교적 공간이라는 의미를 뛰어 넘어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민족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천년고찰(千年古刹)'이라 이름 붙은 사찰에는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안 구석구석까지 모두 한민족의 열이 서린 문화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문화의 가치를 수없이 듣는다. 하지만 정작 사찰을 찾는 많은 사람들 중 이러한 문화에 얽힌 일화를 접하는 이는 많지 않다.

<우리 절을 찾아서>는 저자 신대현 씨가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을 거친 역사를 품은 고찰 48곳을 순례하고, 그 사찰의 유래와 가람배치, 각 건물의 의미 등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20여

년 동안 직접 찾아다니던 사찰의 구석구석에 얽힌 이야기 거리를 독자들에게 풀어낸다. 저자는 신라를 대표 하는 경주 사천왕사를 시작으로 강릉 굴산사지와 신복사지, 영광 불갑사, 보은 법주사, 여주 신복사 등을 답사한다.

"사천왕사지에는 당군을 격파하기 위한 방책과 전술을 연구하던 일종의 국방연구소가 설치돼 있었던 게 아닐까 상상하곤 한다. 685년 당 황제는 수년 전 풍랑으로 나당 전쟁의 군사작전이 무산되자 사천왕사에서 행한 비법이 있었음을 알고 사신을 파견해 진상을 알아오도록 했다. 신라는 사신이 사천왕사에 가는 것을 매우 꺼려 맞은편에 급히 절을 짓고 이를 사천왕사라고 둘러대기도 했다. 이 절은 나중에 망덕사가 된다. 당시 행해졌던 비법은 문드라(Mudra) 밀교

의식 중 하나로 불단을 설치하고 다리니 등을 독송하면 국가의 재난을 물리칠 수 있다' 의식이다. 이 비법으로 싸우지 않고 전쟁을 막았다면 진정한 호국불교가 아닌가 싶다."

책은 사찰의 역사와 유래를 설명하고 각 건축물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짚는다. 화성 용주사의 효 사상, 서울 봉은사 대학생수도원의 청년불교운동, 보은 법주사의 미륵신앙 등 사찰이 가지고 있는 유래와 그 숨은 이야기를 전하며 현대인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거듭 강조한다. 특히 사찰 문화재에 얽힌 인물들의 당시 원력을 살피는 저자의 시선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다가온다.

나뭇결 그대로를 나타내 자연스러움이 두드러지는 내소사의 요사, 여강을 바라보며 자리한 고즈넉한 신복사 삼층석탑 등 다양한 사찰이 함께 실려 아름다움에 대한 눈을 열어준다.

우리 절을 찾아서 | 신대현 지음 | 해안 펴냄 | 1만 5000원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공옥진 여사 5년만에 춤사위

'명인명무전' 올라 한풀이

"공옥진이 죽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또 오겠습니다."

뇌졸중과 교통사고로 무대를 떠나야 했던 우리 시대의 광대 공옥진(사진), 그녀가 5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섰다.

6월 27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한국의 명인명무전'에서 공옥진 여사는 마치 지난날의 한을 풀듯 공연을 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른 것은 2005년 광주 공연 이후 5년 만이다. 공 여사는 1인 창무극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으나 교통사고와 뇌졸중 등으로 병마에 시달려오다 최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날 하얀 소복을 입고 무대에 선 일흔아홉 노구의 표정에는 뇌졸중과 교통사고로 인한 고통이 모두 사라져있었다. 뒤늦게나마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그녀만의 춤사위가 인정받았다는 기쁨에서일까. 노쇠해진 몸으로 수건을 올리기도, 걷기도 힘들어 보였지만 그 열정은 온 무대를 휘감았다. 이제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무대에서 혼을 담은 춤은 관객들을 들쭉이게 했다.

공옥진 여사는 이미 전설이다. 공옥진 하면 병신춤을 떠올리듯 그녀는 창무극의 독보적인 존재였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를 딱 주무르듯 하는 공 여사는 몸을 분리해 배우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나오기 힘든 예술가였다.

그녀의 춤은 민중의 애환과 한 등을 녹여냈다. 하지만 그녀의 창무극은 전통춤이 아니라 이유론 문화재 지정 심사에서 늘 탈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춤판에 설 수 없는 몸으로 문화재가 됐다.

이날 공연은 당초 예정에 없었다. 명인명무전을 주최한 박동국 동국예술기획 대표도 "선생님께서 무대에 오르시려고는 하지만 건강 관계 상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우리 곁에 계신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할 정도였다.



관객들도 인사말 정도를 기대했는데 공 여사는 끝내 무대에 올랐다. 그녀를 기다리는 관객이 있기 때문이었다.

공 여사는 1933년 판소리 명창 공대일 선생의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아버지에게 창을 배웠고, 10세에 일본에서 무용가 최승희 씨에게 신무용을 익혔다. 6·25전쟁 때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나들었고 속세를 떠나 불교에 귀의했다가 환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굴곡진 여정을 춤사위로 풀어 1인 창무극의 갈래를 개척한 공 여사는 서민적인 한국예술을 선보였다. 장애를 가진 인간이나 우리에게 갇힌 동물의 몸짓을 흉내 내며 생명의 한을 표현한 '병신춤'과 '동물춤' 등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날 15분 간 춤사위 후 공 여사는 "죽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훌쩍 무대를 떠났다. 거장의 기억 없는 다짐 속에 잊혀져 가는 민중의 춤에 대한 애석함과 춤 전수에 대한 열의가 묻어난다.

노덕현 기자

'돈황' 실크로드를 빛낸 오아시스

나가사와 카즈토시 '돈황의 역사와 문화'



눈을 찌르는 강렬한 태양, 살을 에는 거친 모래바람, 사막을 건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막을 건너는 이들에게 그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물 부족일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오아시스 는 그야말

로 생명줄이다. 오아시스가 없다면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생사를 걸고 사막길을 횡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다.

<돈황의 역사와 문화>는 중국과 서역을 잇는 오아시스 '돈황' (敦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돈황은 실크로드의 천산북로(天山北路)와 천산남로(天山南路)가 나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긴 사막길에서 여행자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돈황의 존재는 인류문명사에서도 하나의 오아시스로 고대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준다.

돈황이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은 청대에 서구 열강에 의해 문화재가 반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일종의 제국주의 문화침략은 학문적 열정으로 이어져 돈황학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이 과정에 대해 "장경동에서 발견된 대량의 고문서와 미술품은 파리, 런던, 북경 등에 나뉘어 소장되는 불행한 운명에 처했다"며 "하지만 이후 각 소장처를 중심으로 관련 도록과 보고서 등이 꾸준히 출간돼 오늘날 돈황학에 대한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한다. 책 속에는 서구열강의 문화침략을 바라본 아시아인의 입장과 학문의 발전을 다루고자 하는 학자로서의 관점이 섞여 있다.

저자는 책에서 돈황의 관문인 옥문관(玉門關) 위치를 확인하며, 기존 정설(定說)인 옥문관 이동설의 한계와 오류를 밝히는 등 사료분석을 통해 기존 학계의 입장에 반하는 목소리를 낸다. 일본 와세다대에서 실크로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평생을 중앙아시아 현지조사에 주력해 온 저자의 경력이 살아있다.

돈황의 역사와 문화 | 나가사와 카즈토시 지음 | 민병훈 옮김 | 사계절 펴냄 | 2만 5000원

노덕현 기자

네팔 만다라 특별전 7월 3일부터 해인사서

네팔 관광청은 7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 법광루에서 네팔 만다라 특별전을 개최한다.

'천상으로 가는 영혼의 수레바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네팔 만다라 최고작가로 꼽히는 노루부 라마의 만다라 등 5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특별전은 네팔 낙후지역 난민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02)418-5252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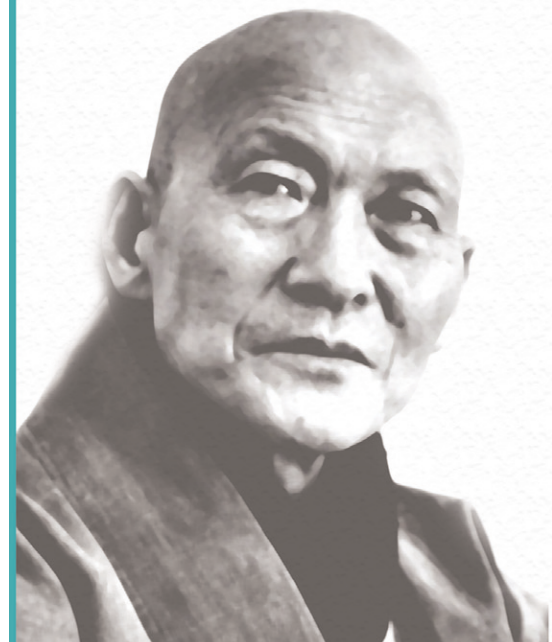
부채바람에 禪 담아 선풍기(禪風氣)전

지구촌 어려운 이를 돕기 위한 '나눔과 공생전'이 6월 25일부터 7월 19일까지 비평리문화전시관 '스페이스 선+' 과 수원 수원사갤러리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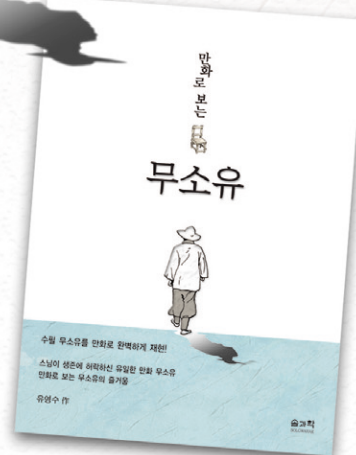
24명의 불교계 신진작가들이 첫 선을 뽐낸 전시회에는 '선풍기(禪風氣)전'이라는 부제 하에 부채와 불교를 접합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수익금의 30%는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로터스월드에게 기부된다. (02)732-0732 노덕현 기자

인생의 큰 가르침이 되는 무소유!

법정스님께서 생존에 허락하신 국내 유일의 만화. 소유와 집착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에게 법정 스님이 전하는 깨우침의 이야기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만화로 완벽하게 재현한 만화 『무소유』



192p / 국판 / 율리터 / 10,000원

제주 돌가마도에연구소 오창운 작가의 살아 숨쉬는 도예의 세계



제주 흙의 재발견 '숨' 180p / 국판 / 율리터 / 11,000원
제주 문화 제주 용기 168p / 국판 / 율리터 / 11,000원

만화로 보는 대통령 풍수이야기 명당 풍수

대권을 얻는 것은 하늘과 땅의 힘을 받아야 한다. 왕이 나온다는 제왕지지를 찾아 조상을 모시고 명당을 찾는 풍수지리는 오랜 옛날부터 행해지던 일이다.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쉽게 풀어서 만화로 보는 명당풍수 이야기



1.대권군 2.박정희 3.전두환 / 신국판 / 각권 10,000원